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074호 1판 (음력 7월 28일) 2015년 9월 10일 목요일

우암학원 창학65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혁신안 통과 안되면 당대표 사퇴 … 재신임 묻겠다"

문재인, 정면돌파 '배수진'

국민여론 50% 당원투표 50%
"탈당·분당·신당 논란 끝내자"
비주류 "나가라는 통보" 격앙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국회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혁신안이 끝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대표직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제안하면서 재신임 투표가 부결되거나 당 혁신안이 최종 통과되지 못할 경우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혁신안을 둘러싼 당 내분이 격화되고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신임 카드를 통해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이는 당내 화합을 위한 헌신이나 희생보다는 대표직을 건 '마이웨이' 선언으로도 읽히고 있어 재신임 여부에 관계없이 비주류 진영의 반발 등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당 대표직을 걸고 혁신, 단결, 기강과 원칙의 당 문화를 바로 세우려 한다"며 "혁신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께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신임을 받으면 "모든 것을 던질 각오로 당을 더 혁신하고 기강을 더욱 분명히 세우겠다. 총선 승리를 위한 총력 체제, 재창당에 가까운 뉴파티(New Party) 비전도 제시하겠다"며 "하지만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즉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견 직후 일문일답에서, 재신임 투표 방법으로 지난해 4월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 당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실시했던 방식(일반국민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을 모델로 들었다.

문 대표는 또 기자회견에서 "저의 결정은 대표로서 당의 혼란과 분열을 끝내고 질서 있는 통합으로 가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라며 "혁신안이 가결되고 제가 재신임 받는다면 혁신이나 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문 대표의 재신임 제안에 대해 당내 비주류 진영에서는 사실상'친노 정당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비주류를 겨냥, "나를 따르거나. 아니면 나갈 사람은 나가라"라는 통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혁신안을 의결하는 중앙위를 앞두고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범주류 진영의 정세균 상임고문은 이날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가 야권 전체의 단결과 통합, 혁신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결단을 해줄 것을 호소한다"며 당내 지도자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비주류 진영의 박주선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을 물을 게 아니라 바로 사퇴하고 친노 계파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천혁신안은 문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직전, 진통 끝에 당무위를 통과했고 오는 16일 당 중앙위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복지사업 줄줄이 중단 위기

정부, 158건 정비 대상 선정
갑작스런 복지혜택 중단우려
대상자 25만명…후폭풍 클 듯

■ 광주시·전남도 주요 복지사업 정비대상 현황

번호	사업명	대상지역
1	장수수당	강진군, 광양시, 구례군,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장성군, 장흥군,진도군, 화순군
2	조손가정지원	광주시(남구, 북구), 광양시, 무안군, 장성군
3	노인일자리	보성군, 순천시,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4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광주시,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5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광주시, 장성군
6	보육료지원	광주시
7	지역 아동센터 지원	광주시(동구), 구례군, 영광군
8	장애인활동 지원	광주시, 전남도
9	장애인 가구 출산지원	광주시(서구), 여수시, 영광군

정부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장수수당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등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광주·전남의 주요 복지사업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갑작스런 복지 혜택 중단으로 인해 현장에 심각한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 김용익 의원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 복지사업 정비대상은 총 158건으로 혜택 대상자만 25만3455명에 이른다.

사업 예산은 모두 839억5800만 원으로, 광주는 183억9400만 원(사업건수 30건·대상자 13만7801명)이며 전남은 655억6400만 원(〃 128건·〃 11만5654명)이다.

주요 정비 대상으론 장수수당(전남 13개 시군)과 조손가정지원(전남 3개 시군) 등이다.

특히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지자체의 지원이 시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정비대상에 포함되면서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시·도는 그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3만~5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7만~2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시와 도의 주요 복지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는 복지부가 지난달 사회보장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자체에 복지사업 정비 공문을 내리면서 감사원이 지적한 '협의 대상 사업'을 정비목록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6월 복지사업 재정지원실태 감사를 통해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조정하지 않은 채 복지 관련 사업을 신설(변경)해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지자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문제는 복지부의 이 같은 복지사업 정비 조치가 사실상 시·도 주요 복지사업의 중단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해당 복지사업이 중단될 경우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정비조치는 사실상 지자체 해당 복지사업을 폐지하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근혜 정부 출범 후…지방재정 최악 됐다

재정자립도 45.1%로 추락
광주 44.2%·전남 17.8%
행자부, 지방세제 개편 추진
지자체 재정난 가중시킬 듯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3조3000억원가량의 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으로 인해 지방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시절 평균 79.6%였던 재정자주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 평균 77%로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68.6%까지 떨어졌다. 재정자립도 또한, 2004년 전국평균 57.2%에서 2009년 53.6%, 올해 45.1%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울산 등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 경북, 경남, 충북, 충남, 강원도 등은 평균에도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재정자립도는 2003년 63.0%에서 2009년 48.3%, 올해 44.2%로 매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 또한, 2003년 21.0%에서 2009년 19.4%, 올해 17,8%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광주와 전남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충실한 재정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매년 사회복지비 등이 급증함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기업합병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와 사업대상 부동산 소유자 취득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한 '201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더욱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부족분을 주민세와 담뱃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됐고, 이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총괄 관리해야 할 행자부가 제구실을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수시모집 062)605-1114